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 비교

신경아¹, 강숙^{2*}

¹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Comparison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by Type D Personality

Kyung-Ah Shin¹, Sook Kang^{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은 간호대학생 181명(D유형 성격 대상자 53명,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 12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χ^2 -test, Fisher exact test 및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D유형 성격에 따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대학생활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유형 성격 대상자에서 자아존중감은 간호학과 적응 정도, 대인관계는 종교, 행복은 경제상태, 대학생활적응은 종교와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D유형 성격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D유형 성격 간호대학생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D유형 성격,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and compare th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between Type D and non-Type D personality among nursing students. Subjects included a total 181 nursing students (Type D personality: n=53, non-Type D personality: n=128).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using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between Type D and non-Type D personality among nursing students.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gree of adap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religion, happiness in economic status, college adjustment in religion and degree of adaption (Type D personality subjects). Type D personality lowered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Strategies for Type D personality in nursing students are needed to increas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Key Words : Type D personality, Nursing studen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College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Sook Kang(skang@cnc.ac.kr)

Received July 12,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August 25,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빠듯한 학사일정과 학점에 대한 압박감, 과다한 분량의 과제,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등으로 학업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학과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1]. 간호대학생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였으며[2], 심리적 안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3].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정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며[4], 비효율적인 대인관계는 불안정한 정서를 형성한다[5].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6]. D유형 성격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을 특성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제한의 개념으로 구성된 성격 유형이다[7]. D유형 성격은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심리학적 결과의 예측인자나 부작용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8], 최근에는 대학생[9], 간호사[10], 간호대학생[11], 중년여성[12]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D유형 성격은 일반대학생의 21.4%[9], 간호대학생의 34.8%로 보고되고[11]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D유형 성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11].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판단으로서 사회적 적응과 바람직한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13],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자를 수용하고 존중하기 위해 선행되는 기본적인 자질이다[14].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타인도 귀하게 여겨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15].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들과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하게 된다[16]. 간호대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17].

간호대학생은 복잡하고 낯선 교육환경과 임상실습교육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5].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3].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상호의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8].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에서 올바른 대인관계는 건진하고 합리적인 인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5]. 현재 D유형 성격과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에서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9]. 이처럼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수준을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인간을 돌보고, 인간의 행복에 큰 관심을 가지며, 건강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20]. 행복한 사람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고통을 잘 극복하는 특성이 있어[21]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간호대학생 자신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간호대상자에 대한 질적인 간호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23] 높은 심리적 안정감은 대학생활의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24]. D유형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25],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행복 수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D유형 성격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에서 D유형 성격과 건강증진행위[9], D유형 성격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26], 간호대학생에서 D유형 성격의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생활스트레스[11]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D유형 성격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D유형 성격은 내향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격적 특성 자체만으로 내·외적인 측면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내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 행복과 외적인 측면인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의 사정을 통해 개별적 중재가 이루어지면 역량있는 간호사로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D유형 성격을 파악하고,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D유형 성격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D유형 성격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D유형 성격 대상자와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유형 성격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와 A도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2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two groups t-test에서 필요한 Tail 2,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효과크기 .60로 설정하였을 때 1집단의 최소 표본수가 51, 전체 101로 산출되었다[27].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186부 중에서 자료응답이 미비한 5부를 제외한 총 18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D유형 성격

D유형 성격은 Denollet[7]이 개발한 D유형 성격 측정도구(The Type D scale-14, DS14)를 Lim 등[28]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D유형 성격 측정 도구(The Korean Type D scale-14, the Korean DS14)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억제 2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영역 모두에서 10점 이상일 경우 D유형 성격으로 판정한다. Denollet[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부정적 정서), .86(사회적 억제)이었으며, Lim 등[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6(부정적 정서), .80(사회적 억제)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부정적 정서), .86(사회적 억제)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2]가 개발하고 Jon[2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문항인 3, 5, 8, 9, 10번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on[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30]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3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하위영역은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스러운(또는 원만하지 못한)편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는(또는 매우 원만한)편이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chlein과 Guerney[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2이었다.

2.3.4 행복

행복은 Suh와 Koo[32]가 개발한 한국판 단축형 행복 척도로, 삶의 만족 3문항,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7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로 삶의 만족 점수와 긍정 정서 점수를 합한 후 부정 정서 점수를 뺀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와 Koo[3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5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3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이며, 5개의 범주(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 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Jeong과 Park[3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5월 28일에서 6월 1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참여 도중 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필로 서명한 후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 시 코드를 부여하였고, 자료는 연구자만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D유형 성격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는 χ^2 -test, Fisher exact test 및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유형 성격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유형 성격 대상자와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D유형 성격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본 연구대상자의 D유형 성격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종교에서 D유형 성격 대상자는 '있다' 43명(81.1%), '아니오' 10명(18.9%)으로 나타났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있다' 79명(61.7%), '아니오' 49명(38.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6.43, p<.05$).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D유형 성격 대상자는 '만족한다' 28명(52.8%), '보통이다' 23명(43.3%), '만족하지 않는다' 2명(3.8%)으로 나타났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만족한다'

100명(78.1%), '보통이다' 26명(20.3%), '만족하지 않는다' 2명(1.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11.60, p<.05$).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D유형 성격 대상자는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37명(69.8%), '잘 적응하고 있다' 13명(24.5%), '적응이 어렵다' 3명(5.7%)으로 나타났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잘 적응하고 있다' 66명(51.6%),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61명(47.7%), '적응이 어렵다' 1명(0.8%)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13.71, p<.05$). 일반적 특성 중에 성별, 연령, 동아리 활동, 거주 환경, 경제상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3.2 D유형 성격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비교

자아존중감은 D유형 성격 대상자 2.60 ± 0.33 점이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 3.06 ± 0.39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8.03, p<.001$). 대인관계는 D유형 성격 대상자 3.35 ± 0.36 점이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 3.86 ± 0.39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8.18, p<.001$). 행복은 D유형 성격 대상자 1.34 ± 0.75 점이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 2.29 ± 0.79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7.53, p<.001$). 대학생활적응은 D유형 성격 대상자 3.07 ± 0.31 점이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 3.36 ± 0.52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77, p<.001$)(Table 2 참고).

3.3 D유형 성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

D유형 성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간호학과 적응 정도($F=9.8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다'와 '적응하는데 어렵다'가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종교($t=-2.6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행복은 경제상태($F=5.2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은 종교($t=-4.21, p<.001$), 간호학과 적응 정도($F=4.3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ype D and Non-Type D Personality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81)	Type D (n=53)	Non-type D (n=128)	$\chi^2/t(p)$
		n(%)	n(%)	n(%)	
Gender	Female	147(81.2)	44(83.0)	103(80.5)	0.16†(.835)
	Male	34(18.8)	9(17.0)	25(19.5)	
Age (yr)		21.23±5.50	21.36±5.81	21.18±5.39	-0.20(.843)
Religion	Yes	122(67.4)	43(81.1)	79(61.7)	6.43†(.014)*
	No	59(32.6)	10(18.9)	49(38.3)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128(70.7)	28(52.8)	100(78.1)	11.60(.003)*
	Usually	49(27.1)	23(43.3)	26(20.3)	
	Bad	4(2.2)	2(3.8)	2(1.6)	
Club activities	Yes	98(54.1)	31(58.5)	67(52.3)	0.57†(.513)
	No	83(45.9)	22(41.5)	61(47.7)	
Living environment	Living with parents	93(51.4)	24(45.3)	69(53.9)	2.86(.413)
	Dormitory and boarding	36(19.9)	13(24.5)	23(18.0)	
	Rented room	41(22.7)	11(20.8)	30(23.4)	
	Others	11(6.1)	5(9.4)	6(4.7)	
Economic status	High	8(4.4)	1(1.9)	7(5.5)	2.19(.334)
	Middle	150(82.9)	43(81.1)	107(83.6)	
	Low	23(12.7)	9(17.0)	14(10.9)	
Degree of adaption	Well adapted	79(43.6)	13(24.5)	66(51.6)	13.71(.001)*
	It's difficult, but I'm trying to adapt.	98(54.1)	37(69.8)	61(47.7)	
	Difficulty in adapting	4(2.2)	3(5.7)	1(0.8)	

†Fisher's exact test; * $p < .05$, ** $p < .001$

Table 2. Differences i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between Type D and Non-Type D Personality (N=181)

Variables	Total (n=181)	Type D (n=53)	Non-type D (n=128)	t(p)
	M±SD	M±SD	M±SD	
Self-esteem	2.92±0.43	2.60±0.33	3.06±0.39	8.03(.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1±0.44	3.35±0.36	3.86±0.39	8.18(.000)**
Happiness	2.01±0.89	1.34±0.75	2.29±0.79	7.53(.000)**
College adjustment	3.27±0.49	3.07±0.31	3.36±0.52	3.77(.000)**

* $p < .05$, ** $p < .001$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간호학과 적응 정도는 '잘 적응하고 있다'가 '적응하는데 어렵다'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참고).

3.4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

($F=6.89, p < .05$), 거주환경($F=2.92, p < .05$), 간호학과 적응 정도($F=17.25,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거주환경에서는 '부모와 거주', '기숙사 및 하숙', '자취'가 '기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 간호학 전공 만족도($F=3.24, p < .05$), 동아리 활동($t=2.08,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행복은 성별($t=-2.63, p < .05$), 간호학 전공 만족도($F=9.63, p < .001$), 간호학과 적응 정도($F=6.54,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가 '만족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 (F=5.01, $p<.05$), 간호학과 적응 정도(F=5.44, $p<.05$)에
 은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F=11.05, $p<.001$), 경제상대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참고).

Table 3. Differences i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ype D Personality (N=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College adjustment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Gender	Female	2.58±0.34	-1.12	3.34±0.36	-0.48	1.26±0.68	-1.65	3.06±0.29	-0.28
	Male	2.71±0.28	.266	3.40±0.38	.631	1.70±0.98	.106	3.09±0.45	.780
Religion	Yes	2.57±0.31	-1.52	3.29±0.34	-2.62	1.35±0.76	0.27	2.99±0.27	-4.21
	No	2.74±0.39	.135	3.60±0.33	.012*	1.28±0.75	.790	3.39±0.27	.000**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2.62±0.36	0.11	3.35±0.40	0.11	1.47±0.84	1.96	3.14±0.33	1.53
	Usually	2.57±0.31	.899	3.33±0.32	.894	1.13±0.60	.152	2.99±0.29	.227
	Bad	2.60±0.42		3.46±0.42		1.89±0.31		3.00±0.15	
Club activities	Yes	2.60±0.31	-0.04	3.38±0.32	0.80	1.30±0.76	-0.35	3.12±0.31	1.45
	No	2.60±0.37	.973	3.30±0.40	.424	1.38±0.75	.726	2.99±0.32	.153
Living environment	Living with parents	2.57±0.42	0.27	3.38±0.44	2.64	1.25±0.84	0.29	3.07±0.35	1.89
	Dormitory and boarding	2.60±0.26	.849	3.33±0.26	.086	1.47±0.67	.833	3.09±0.24	.143
	Rented room	2.60±0.20		3.20±0.17		1.30±0.79		2.92±0.32	
	Others	2.72±0.27		3.60±0.34		1.47±0.46		3.31±0.09	
Economic status	High ^a	2.80	0.22	3.32	0.66	2.56	5.25	3.53	1.09
	Middle ^b	2.60±0.34	.804	3.37±0.37	.519	1.43±0.72	.009*	3.06±0.32	.343
	Low ^c	2.57±0.34		3.22±0.29		0.74±0.51		3.05±0.26	
Degree of adaption	Well adapted ^a	2.88±0.28	9.83	3.48±0.36	1.32	1.76±0.78	3.00	3.27±0.33	4.31
	It's difficult, but I'm trying to adapt. ^b	2.48±0.29	.000**	3.30±0.36	.276	1.19±0.68	.059	3.01±0.28	.019*
	Difficulty in adapting ^c	2.80±0.17	b<a,c	3.37±0.30		1.26±1.03		2.89±0.32	c<a

* $p<.05$, ** $p<.001$

Table 4. Differences i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Non-Type D Personality (N=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College adjustment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Gender	Female	3.05±0.39	-0.25	3.84±0.38	-0.88	2.20±0.74	-2.63	3.35±0.52	-0.23
	Male	3.08±0.42	.807	3.92±0.43	.383	2.65±0.87	.010*	3.38±0.56	.823
Religion	Yes	3.03±0.39	-1.12	3.85±0.36	-0.09	2.27±0.82	-0.41	3.33±0.52	-0.84
	No	3.11±0.39	.264	3.86±0.44	.928	2.33±0.73	.680	3.41±0.53	.404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a	3.12±0.38	6.89	3.90±0.40	3.24	2.44±0.72	9.63	3.46±0.49	11.05
	Usually ^b	2.82±0.36	.001*	3.69±0.33	.042*	1.78±0.81	.000**	2.97±0.47	.000**
	Bad ^c	2.85±0.07		3.82±0.14		1.44±0.47	c<a	3.05±0.15	
Club activities	Yes	3.07±0.40	0.44	3.92±0.40	2.08	2.29±0.83	-0.07	3.41±0.55	1.20
	No	3.04±0.39	.663	3.78±0.36	.040*	2.30±0.74	.944	3.30±0.49	.231
Living environment	Living with parents ^a	3.04±0.41	2.92	3.85±0.40	0.91	2.31±0.78	1.41	3.37±0.56	0.90
	Dormitory and boarding ^b	3.05±0.41	.037*	3.80±0.38	.437	2.21±0.85	.244	3.45±0.45	.442
	Rented room ^c	3.19±0.33	d<a,b,c	3.94±0.37		2.41±0.79		3.31±0.51	
	Others ^d	2.70±0.18		3.71±0.29		1.72±0.44		3.08±0.49	
Economic status	High ^a	2.96±0.34	2.50	3.85±0.48	0.01	2.10±0.87	1.33	3.27±0.81	5.01
	Middle ^b	3.09±0.38	.087	3.85±0.39	.995	2.34±0.73	.268	3.40±0.52	.024*
	Low ^c	2.86±0.45		3.87±0.35		2.01±0.79		3.09±0.31	
Degree of adaption	Well adapted ^a	3.22±0.34	17.25	3.92±0.43	2.07	2.52±0.78	6.54	3.49±0.54	5.44
	It's difficult, but I'm trying to adapt. ^b	2.87±0.36	.000**	3.78±0.33	.131	2.04±0.73	.002*	3.20±0.47	.005*
	Difficulty in adapting ^c	3.60		3.88		2.78		3.74	

* $p<.05$, ** $p<.001$

4. 논의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D유형 성격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 간호학 전공 만족도,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중년여성에서 종교가 없는 대상자에서 D유형 성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Park[12]의 연구, 간호대학생에서 D유형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 만족도를 보고한 Noh 등[1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D유형의 부정적 정서의 특징이 전공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과 친구의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에 비해 D유형 성격 점수가 높게 나타난 Noh 등[11]의 연구 결과를 볼 때 학과 만족도와 간호학과 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D유형 성격 대상자를 가진 간호대학생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학과 적응 정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D유형 성격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에 비해 D유형 성격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11], D유형 성격에 해당하는 중년여성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난 Park[12]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D유형 성격군이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유형 성격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Noh 등[11]의 연구를 볼 때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나 임상실습 수행과도 관련이 되므로[34]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D유형 성격에 따른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생활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에서 D유형 성격 대상자가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Noh 등[11]의 연구, 대학생에서 대인관계 영역에서 D유형 성격 대상자와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Hong[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중년여성에서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에서 D유형 성격 대상자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Bae, Park과 Oh[3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D유형 성격 대상자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낮게 나타남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D유형 성격 대상자의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해 훈련된 전문가나 지지그룹을 운영하여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D유형 성격에 따른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D유형 성격 중년여성에서 D유형이 아닌 중년여성보다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Park[12]의 연구에서 행복 정도도 낮을 거라 유추해볼 수 있다. 행복은 자신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자 생각으로, 개인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36]. D유형 성격 중년 여성은 D유형 성격이 아닌 중년 여성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낮게 보고한 Bae 등[35]의 연구를 볼 때, D유형 성격을 가진 간호대학생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중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D유형 성격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임을 보여준 Bae 등[3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D유형 성격 대상자의 행복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D유형 성격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으로 성격을 분류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1유형(개혁가)이었고 가장 낮은 성격유형은 4유형(예술가)과 5유형(사색가)로 나타난 Lee와 Jeon[6]의 연구에서 내향적 성격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D유형 성격군의 대학생활적응이 낮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성격 특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어 주고 있으며,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격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 Lee, Choi와 Yeon[37]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격 특성이 대학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입학 초기에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아존중감은 D유형 성격 대상자에서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 거주환경,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군과 상관없이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자아존중감과 간호학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Chung[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믿음을 주고 칭찬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강해지므로[39] 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강화 교육, 간호학과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관계는 D유형 성격 대상자에서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간호학 전공 만족도, 동아리 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1학년 간호대학생에서 전공 만족도에 따라 대인관계의 차이가 나타난 Song, Na, Jeon과 Jung[40], Chung[38]의 연구,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에서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낸 Chae[4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3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다양한 대상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1학년부터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 및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D유형 성격 대상자에서 대인관계가 종교에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 비교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종교활동이 대인관계를 도우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은 D유형 성격 대상자에서 성별, 간호학 전공 만족도,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경제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에서 경제수준에 따라 행복에 차이가 나타난 Kim과 Hong[42]의 연구, 가구내 평균 월수입,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Kim과 Lee[4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행복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성격군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서 차이를 나타내 이를 고려한 행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활적응은 D유형 성격 대상자에서 종교,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유형 성격이 아닌 대상자는 간호학 전공 만족도, 경제상태, 간호학과 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군에서 공통적으로 간호학과 적응 정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학년 간호대학생에서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Oh[44]의 연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Song 등[40]의 연구, 간호대학생에서 종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Ko[4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기에[40], 입학 전 전공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도 및 상담을 이루어진다면 중도탈락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격군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차이로 대학생활적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 활동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유형 성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D유형 성격 간호대학생은 D유형 성격을 가지지 않은 간호대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D유형 성격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유형 성격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복 및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와 타당화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D유형 성격을 사정하여 성격 특성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D유형 성격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H. Choi & M. J. Park. (2013).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339-349. DOI : 10.5392/JKCA.2013.13.07.339
- [2]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 DOI : 10.5392/JKCA.2014.14.10.873
- [3]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4] M. S. Lee & P. K. Chae.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1), 63-75.
- [5] M. Jung. (2015). Influence of ego states, self-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14-4620.
DOI : 10.5762/KAIS.2015.16.7.4614
- [6] M. R. Lee & H. S. Jeon. (2015).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861-8869.
DOI : 10.5762/KAIS.2015.16.12.8861
- [7] J. Denollet. (2005). DS14: Standard assessment of negative affectivity, social inhibition, and type D personality. *Psychosomatic Medicine*, 67, 89-97.
- [8] M. Y. Cheon & J. Y. Kang.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D personality and compliance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8(1), 61-70.
DOI : 10.7475/kjan.2016.28.1.61
- [9] E. Y. Hong.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D personalit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31(1), 109-120.
DOI : 10.5932/JKPHN.2017.31.1.109
- [10] S. R. Kim, H. Y. Kim & J. H. Kang. (2014). Effect of Type D personality 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compassion satisfaction, and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272-280.
DOI : 10.11111/jkana.2014.20.3.272
- [11] J. H. Noh, E. J. Lim & Y. S. Jung. (2013). Factors influencing Type D personality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6265-6274.
DOI : 10.5762/KAIS.2013.14.12.6265
- [12] Y. R. Park. (2010). Type-D Personality,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5), 2567-2578.
- [13] C. R. Rogers.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Grougton Mifflin.
- [14] M. R. Lee & Y. K. Kwag. (2017). Personality type, ego state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523-533.
- DOI : 10.14257/ajmahs.2017.05.36
- [15]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6] M. Rosenberg. (1982).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17] J. S. Kim & M. S. Chung. (2016).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according to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Enneagram Spirituality*, 5, 2287-4429.
- [18] D. L. Miller. (2001). Reexamining team work KSAs and employee performance. *Small Group Research*, 32(6), 745-766.
- [19] S. Y. Chung & G. Y. Kang. (2018). MBTI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1), 289-303.
DOI : 10.22251/jlcci.2018.18.11.289
- [20] J. M. Kim & S. K. Hong. (2016). Influence of self-reflection, self-esteem, and empathy on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2(2), 113-120.
DOI : 10.14370/jewnr.2016.22.2.113
- [21] M. E. P. Seligman. (2002). *Authentic happiness*. NY: New York Free Press.
- [22] M. S. Kim, H. W. Kim & K. H. Cha. (2001). Analyses i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 [23] H. S. Park. (2014). Stress, Yang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471-481.
DOI : 10.5977/jkasne.2014.20.4.471
- [24]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DOI : 10.5977/jkasne.2012.18.2.312
- [25] E. J. Lim, S. E. Kim & J. H. Noh. (2012). Type D personalit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young adult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6), 3121-3133.
- [26] M. K. Jeon & Y. J. Kim. (2017). Effect of Type D personality on life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3), 188-194.
DOI : 10.17547/kjsr.2017.25.3.188
- [27]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of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28] H. E. Lim et al. (2011). Assessment of the type D

- personality construct in the Korean population: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DS14.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6(1), 116-123.
- [29]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 11(1), 107-129.
- [30] S. Schlein, B. Gureney & L. Stover.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31]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 195-204.
- [32] E. J.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 [33] E. K. Suh & J. S. Koo.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6-114.
- [34] Y. S. Kim, M. S. Kim & W. S. Cho.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8(1), 51-60.
- [35] S. H. Bae, J. H. Park & E. G. Oh. (2011). A comparison of the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between Type D personality and non-Type D personality in middle 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4), 337-345.
DOI : 10.4069/kjwhn.2011.17.4.337
- [36] A. K. Bekhet, J. A. Zauszniewski & W. E. Nakhla. (2008). Happiness: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ursing Forum*, 43(1), 12-23.
DOI : 10.1111/j.174406198.2008.00091.x
- [37] M. S. Lee, H. S. Choi & E. M. Yeon. (2019). Relationship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71-81.
DOI : 10.5762/KAIS.2019.20.3.71
- [38]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 10.5977/jkasne.2014.20.2.332
- [39] M. G. Adler & N. S. Fagley.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79-114.
DOI : 10.1111/J.1467-6494.2004.00305.x
- [40] H. S. Song, E. S. Na, Y. H. Jeon & K. I. Jung. (2016).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3(1), 72-81.
DOI : 10.21086/ksles.2016.03.23.1.72
- [41]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42] J. M. Kim & S. K. Hong. (2016). Influence of self-reflection, self-esteem, and empathy on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2(2), 113-120.
DOI : 10.14370/jewnr.2016.22.2.113
- [43] S. H. Kim & S. H. Lee. (2015).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1), 63-72.
- [44]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45] M. S. Ko. (2015).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280-291.
DOI : 10.5392/JKCA.2015.15.10.280

신 경 아(Kyung-Ah Shin)

정회원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의사소통, 상담 심리학
- E-Mail : ska0304@hanmail.net

강 숙(Sook Ka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4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skang@cnc.ac.kr